

www.gochang.go.kr



2018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안녕과 번영을 염원하는

모양성 제야의 북소리

• Program •

| 주요행사 |

축하공연, 군민 인터뷰 영상상영, 송년 및 신년사, 타고식, 군민합창, 불꽃쇼, 신년해맞이(2019년1월1일 07:00) 등

| 부대행사 |

소원지 쓰기, 차 나눔행사 등

2018. 12. 31.(월) 22:00

고창읍성 앞 잔디광장



주관 • (사)고창모양성보존회 후원 • 고창군 고창군의회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2018년 한 해 이렇게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고창시대-민선 7기 공약사업 확정’

유기상 군수는 취임직후 새로운 고창, 신명나는 고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했다. 전문가 토론회, 정책포럼, 군민 토론회 등을 열고 외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6개 분야 64개 공약사업을 확정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내 최초로 핵심 전략사업 정책담당관제를 도입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간부 공무원들만 참여하던 딱딱한 회의를 시낭송으로 시작하는 현안회의로 바꿨고, 전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생중계했다. 의전간소화, 업무일몰제도 추진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켰다.

‘농생명식품’, ‘역사문화관광’ 두 개의 숲을 걷다

고창군은 올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농생명식품산업’ 과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 이라는 두 개의 큰 숲을 걸고 군민 밥 그릇 채우기에 나섰다.

멜론과 땅콩이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을 수상했고, 농산물 종합가공 공장 완성과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사업이 공모에 당선돼 백년 천년 안전 먹거리 기반을 다졌다.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고, 귀농·귀촌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성공적으로 운영돼, 올해 22세대가 1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본격 영농에 뛰어 들었다. 최근에는 동호향 어촌마을도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 주민과 함께하는 노을 미항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현장중심 군민 속으로”

매월 1개면씩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이동 군청’ 을 운영해 군수가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이 가능한 건은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 지역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현장 방문 간담회’ 의 비중을 높였다. 이처럼 모든 군정의 중심에 군민이 함께한 결과,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최 ‘2018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행복지수평가’ 에서 고창군이 우수지자체로 꼽히는 경사를 맞았다.



대한민국 대표 생태 도시 입지 굳혀

10월에는 인천강 하구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이로써 고창은 국내유일의 '내륙', '연안', '하천' 습지를 모두 보유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고창군은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보호로 생물 다양성 확보와 운곡습지, 고창갯벌, 고창선운사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와 람사르갯벌센터도 완공돼 세계프리미어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5년 연속 수상을 비롯해 '생태도시대상', '친환경 지방자치단체장상'을 휩쓸며 명실상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진면목을 대내외에 알리게 됐다.



'나눔과 봉사, 기부의 천국 고창군'

유기상 군수는 평소 '나눔과 봉사, 기부의 천국 고창군'을 강조하며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활동화, 각종 행사와 축제 시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 시켰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나눔과 기부를 통한 삶의 가치에 대해 군민특강을 펼쳤고, 김치부터 쌀, 이불, 반찬, 집수리, 장학금 전달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눔과 봉사를 생활화 하는 '자랑스런 고창'을 만들어 가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고창군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난여름 재앙급 폭염 속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의 안전을 점검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상담'도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극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도 마련해 치매조기진단,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군민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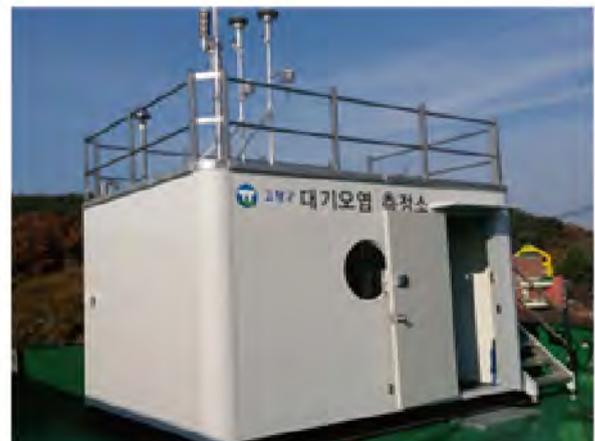
올해 고창군은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군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먼저, 고창 기(氣) 살리기의 일환으로 '고창주인의식 심기', '고창자랑하며 살기', '살맛나는 고창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 고창 물건을 사며 지역기업을 키우고, 기업은 지역 우수인재를 채용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여기에 고창사람 먼저 기회주기 등 '고창인재키우기', 자원봉사 생활화 등 '함께하며 나누기'도 지역단체, 일반군민까지 뜻을 같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한반도 첫 수도'

-10월말 기준 전북도내서 미세먼지 농도 가장 낮아

'청정도시 고창'은 중국발 황사와 각종 먼지로 뿌옇고 답답한 하늘대신 쾌청하고, 맑은 대기상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에선 올해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노후경유차 270여대 조기폐차, 어린이 통학차량 5대를 LPG로 전환하는 사업을 마무리 했다.

그 결과, 도내 시군 중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제일 낮아 '청정고창'의 명성이 재확인됐다. 이처럼 고창군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보호로 '행복실감도시'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신호위반과 과속차량으로 사고위험이 높았던 터미널 사거리가 회전교차로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난립한 간판 등을 정비해 쾌적한 시내 환경을 만들었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에도 도움을 줬다.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19일부터 31일간 운영하고 12월 19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졌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다.

고창군 의회(의장 조규철)는 2018년 한 해 동안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군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 10월 31까지 행정전반에 대해서 수행한 330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보고 및 질의를 받고 시정 요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봉희위원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 개선 요구사항을 2019년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말하였다.

조규철 의장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 앞서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실무기법을 습득 군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 군정에 반영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말하였다.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지난 11월 29일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이 진행됐다. 이날 이경신의원, 최인규의원, 임정호의원, 진남표의원 등 네명의 의원이 순서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먼저 이경신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대책과 문제 해결 방안, 장애인 복지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했고,

이어서 최인규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한우거리 조성, 가로수 조성 및 소나무 육성, 고창 땅을 살리기 위한 토양개량에 대한 특단의 대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피해 대책, 국가 건강검진 시 군 지정병원 이용 방안, 흥덕면에 건립된 북부권 체육관 및 태양광단지 솔라파크에 대하여, 배풍산공원 활성화방안, 서해안 고속도로(선운산 IC→흥덕 IC) 명칭 변경 등을 요청했다.

임정호 의원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 지역축제시 지역상품 홍보와 마케팅 방안, 농민수당 지급시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과 병행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진남표 의원은 "고창군은 농업은 버려지고 바다는 잃어버리고 역사는 실종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20년전 대표작물로 개발된 복분자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20여개의 농작물 중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작물이 없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식품산업과 역사문화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규철 의장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감사를 전하고 군수에게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내용으로 답변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고창군이장단연합회, 고창군외용소방대연합회, 자유총연맹, 농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 농가주부모임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 새마을부녀회, 민주평통 등 250여명의 단체(주민)를 초청 방청하게 하였다.

주요 군정질문과 답변, 201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를 방청하면서 군민과 의정활동을 함께 호흡하고, 군민 애로사항과 의견 취회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하고, 군민이 자발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에 따른 재검토 결의안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을 5월11일 황토현전투일로 결정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11월 13일 의원간담회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11월 19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창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차남준의원이 낭독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에 따른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결정된 사안으로, 고창군민과 고창군의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보국안민창의 깃발아래 포고문과 4대명의, 12개조 기율을 선포하고 사회제도의 개혁과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출발한 동학농민혁명 시작일인 무장기포일 4월25일이 법정기념일로 다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8년 고창 10대 뉴스선정, 1위 '선거혁명-유기상 군수 당선' 2019년 고창군 새해 사자성어 '평이근민(平易近民)' 선정

고창군이 올 한 해 지역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와 '2019년 새해 사자성어'를 선정·발표했다.

'고창 10대 뉴스' 선정 결과 1위는 '6·13 지방선거 혁명-유기상 군수 당선'이 차지했다. 유 군수는 특유의 성실성과 진정성으로 묵묵히 바닥을 다지며 누구도 예상 못한 대역전극을 일궈냈다.

특히 '돈안 드는 선거혁명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고창에서 뿌리 내리자'는 목표로 고창군 최초로 군민 참여형 선거자금 모금 펀드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위는 '무장읍성 비격진천뢰 출토'로 꼽혔다. 비격진천뢰는 조선시대 최첨단 화약으로 이번 무장읍성에서 무더기로 출토되면서 고창군이 호남 방어 요충지였음이 확인됐다.

또 ▲불타는 차량서 운전자 구한 고창의 의인-택배기사 유동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슬로건 발표 ▲고창 바다권리 찾기 헌법재판 ▲고창 수박음료 스타벅스 입점 ▲고창, 평창동계올림픽 성화채화 및 봉송행사 ▲인천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군청 간부회의 공개(시 읽는 간부회의) ▲국내최초 농촌영화제 개막도 올해의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또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이 알기 쉬운 공감행정으로 군민 속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의미인 '평이근민(平易近民)'을 2019년도 새해 사자성어로 정했다. 유기상 군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 그 어느 때 보다 군민중심·군민우선의 현장행정, 공감행정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전제한 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더 친근하게 군민속으로 들어가 군민과 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일찍부터 모양성 안에 있는 고창현 동현의 현판도 '평근당(平近堂)'으로 붙여져 '평이근민(平易近民)'이 과거부터 고창의 행정철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평이근민'은 "행정이 간소하고 쉽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가오지 않지만, 군민들에게 쉽게 다가간다면 민심이 돌아온다"는 뜻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로 [夫政不簡不易 民不有近, 平易近民 民必歸之] 사기(史記) 노주공세가(魯周公世家)편에 나오는 말이다.

'고창 사랑의 빛' 야간 경관조명 점등 - 군민들의 희망과 나눔의 빛이 되길



고창군 청사 앞이 환한 조명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다.

고창군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과 꿈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하기 위해 내년 2월 중순까지 군 청사 주변 야간 경관조명을 밝히고 있다.

올해 경관조명은 청사 앞 회전교차로와 청사 광장에 한반도 지구본, 나눔과 봉사 공유하기, 추억 만들기 등 3가지 테마로 경관조명을 조성했다.



특히,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지구본은 고창군이 모든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고창을 형상화했으며 '나눔과 봉사는 군민의 행복'의 문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

아울러 청사 광장에 설치된 형형색색의 LED조명과, 조형물은 군민들에게 추억이 깃들 수 있는 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성했다.

고창군, 신규사업 국가예산 206억원 대거 확보!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본격 착수



고창군이 2019년도 국가예산 1170억원을 (총사업비 1조1537억원 규모)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확보된 사업비 내역은 2019년 신규사업이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65건, 206억원(총사업비 2160억원)의 사업을 발굴·확보해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군 역점 사업들의 추진 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비롯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수동지구' 설계비 5000만원(총사업비 30억원), 노동천과 강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7억원(총사업비 305억원)과 '고창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원(총사업비 1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수산분야에선 스마트팜 보급사업(총사업비 30억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총사업비 14억원),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 보급사업 (총사업비 4억원) 등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선 7기 농생명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우리 시대의 '의인' 불난 차량에 뛰어들어 인명 구조 고창군 유동운씨 희생과 봉사정신 귀감 '의향 고창인' 표창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가까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창군에서 택배를 배달하는 유동운씨. 유씨는 11월8일 오후 택배 트럭을 운전해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 석남교차로 인근을 지나던 중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해 불타고 있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사고 차량에서 경적이 울리고 있는 것을 본 유씨는 주저 없이 불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 뛰어들었고, 다친 운전자를 구조 했다.

유씨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근무복을 덮어주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말을 건네는 등 차분하게 대처했다. 119구조대 도착 후 유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유씨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각박해져가는 사회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유씨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과 홀로 어르신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마을과 지역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화합의 고창군을 만드는데 기여해왔다.

유동운씨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차량 안에 사람이 있어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누구나 저처럼 했을 것”이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12월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다짐의 날' 에서 나눔과 봉사, 헌신의 사회정의를 실현해 자랑스런 고창의 이름을 드높여준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유동운씨에게 '의향 고창인' 표창을 수여했다.

추운 겨울,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고창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자 가장 만만한 음식인 김치, 하지만 이 김치를 담가먹는 일이 힘겹고 부담스러운 이웃들이 우리 곁에 존재 한다. 내 집 김치 냉장고를 채우기 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두 손을 거두고 나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손길이 있다.

12월7일 고창군 상하면의 한 골목길에 시큼한 김장양념냄새가 코끝을 찔러 왔다. 색색깔의 앞치마를 입은 주부들이 일렬로 빼곡히 서 테이블 위에 놓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입히고 있었다. 하얀색 배추가 서서히 빨간색 '김치' 로 물들어 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상하면 부녀회는 이날 담은 사랑의 김장김치를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등 200 세대에 전달했다.

상하면 부녀회 서순애 회장은 “소금, 새우젓 등 값비싼 재료들은 아니지만 어느 유명한 요리연구가라도 상하면 사랑의 김치 맛을 흉내낼 순 없을 것이다” 며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속정이 배추 속마다 듬뿍뽀뽀 버무려져 있기 때문이다” 고 웃으며 말했다. 이처럼 연말연시를 맞아 고창군내 다양한 나눔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고수면주민자치위원회는 원광 참살이 요양원에 방문해 김장김치 700포기를 버무렸고, 흥덕면 사회보장협의체, 아산면 새마을부녀회, 심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또 고창군 신림면은 전 직원과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52세대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다. 신림면사무소 직원들은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온기가 스며있는 반찬을 전달하며 난방 상태 확인 및 생활에 불편한 점을 묻고 살폈다.

쌀 기탁도 이어지고 있다. 성송면 계당마을 정종필씨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백미(20kg) 40포(160만원 상당)를 면사무소에 기부했다. 고창읍 석탄마을 유제관씨도 가족들과 함께 고창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백미(20kg) 110포(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님프만 고창점(이불 커텐 전문점) 박재열 대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겨울 이불 20채를 고창군에 기탁했다. 고창 대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난방용품 전기매트' 를 지원하며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군민운동' 에 함께했다.

‘느리지만 정직하게’

질마재푸드 영농조합법인

기업탐방 search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에 자리 잡고 있는 질마재푸드는 청정지역 고창으로 귀농한 3대가 유기농 농산물을 엄선하여 유기농과자를 만들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서 직접 나고 자란 100%유기농 농산물과 유기농작목반 35명의 농부가 키운 유기농쌀을 활용해 팽창제, 보존제, 설탕, 소금, 색소 등 어떠한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은 순수 식품이다.

유기농쌀과자는 7일간의 정성어린 제조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슬로푸드다. 유기농 쌀을 깨끗이 씻어 물러에 곱게 갈아낸 후 설기로 찌서 가래떡으로 여러번 내려 졸갠다. 이후에도 이를 동안 자연 건조 후 건조실에서 3일간 충분히 건조시켜 고온의 빵튀김 기계에서 고압으로 튀겨내면 유기농쌀과자가 만들어진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선 절대 타협 하지 않는다.

또 손쉽게 미음이나 이유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쌀·찹쌀·현미쌀을 초기·중기 단계로 도정한 제품을 만들어 주 소비자층인 아이를 둔 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트렌드에 맞춰 제품 디자인과 미미토끼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시키고, SNS를 통해 농산물 재배, 수확, 제작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16개국에서 EMS를 통한 해외구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연 매출 12억원을 달성했다.

질마재푸드의 성장과 함께 해마다 고창지역 쌀과 유기농 과일, 채소에 대한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으며, 고용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질마재푸드 영농조합법인 주재만 대표는 앞으로 국내 쌀가공시장 선두기업으로 입지를 선점하고 유기농쌀 생산안정화 및 계약농가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느리지만 정직하게 유기농과자를 만들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는 말을 전했다.

질마재푸드 제품은 질마재푸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로컬푸드 전주 신시가지 도청점,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jilmajae.com/>
전화번호 : 070-4128-1703



2018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 연번 | 상 호 명 | 소 재 지 | 전 화 | 주 취급음식 |
|----|-------------|--------------|----------|-------------|
| 1 | 고창고인돌(상)휴게소 | 서해안고속도로 80 | 561-6323 | 추어탕 |
| 2 | 고창고인돌(하)휴게소 | 서해안고속도로 81 | 561-6313 | 장어탕 |
| 3 | 태항갈비 | 중앙로 306-4 | 564-2223 | 돼지갈비 |
| 4 | 중앙관 | 고창읍 모양성로 27 | 564-2107 | 짜장면, 탕수육 |
| 5 | 우리풍천장어 | 월암수월길 104-14 | 563-8882 | 풍천장어 |
| 6 | 퓨전한정식 마실 | 월암수월길 104-8 | 564-4000 | 퓨전한정식 |
| 7 | 월곡야채막회 | 고창읍 월곡 8길 10 | 561-3656 | 야채막회 |
| 8 | 모양성숯불구이 | 동리로 183 | 564-9979 | 영양돌솥밥, 돼지갈비 |
| 9 | 분가 | 석정2로 171 | 564-5888 | 백합, 바지락정식 |
| 10 | 군산아구찜 | 고창읍 성산2길 41 | 564-8900 | 아구찜 |
| 11 | 길뜨락 | 상원사길 1-6 | 564-0010 | 낙지쌈밥, 돼지갈비 |
| 12 | 고창면옥 | 고창읍 수월길 8 | 561-1007 | 풍천장어, 냉면 |
| 13 | 석정풍천장어 | 석정2길 105-2 | 564-0592 | 풍천장어 |
| 14 | 다은회관 | 고창읍 동산7길 1 | 564-6543 | 백합정식, 생선찜 |
| 15 | 조양관 | 고창읍 천변남로 86 | 564-2026 | 한정식 |
| 16 | 모양성순두부 | 동리로 133-13 | 564-0337 | 순두부, 청국장 |
| 17 |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 | 보릿골로 132 | 564-4597 | 보쌈, 부대찌개 |
| 18 | 우성회관 | 고창읍 중앙로 232 | 561-2527 | 등심, 아구찜 |

| 연번 | 상 호 명 | 소 재 지 | 전 화 | 주 취급음식 |
|----|-------------|-----------------|----------|---------------|
| 19 | 해성 | 고창읍 성산4길 26 | 563-3009 | 메밀국수 |
| 20 | 가마솥곰탕 | 고인돌대로 1438 | 564-0988 | 곰탕 |
| 21 | 아산가든 | 선운사로 116 | 564-1680 | 풍천장어 |
| 22 | 청원가든 | 선운사로63-6 | 564-0414 | 풍천장어 |
| 23 | 고향식당 | 중촌길 20-3 | 563-1326 | 풍천장어, 산채비빔밥 |
| 24 | 산장회관 | 중촌길 20-5 | 563-3434 | 풍천장어, 돌솥산채비빔밥 |
| 25 | 초원풍천장어 | 선운사로100-1 | 564-8015 | 풍천장어 |
| 26 | 진흥식당 | 중촌길 15 | 563-3441 | 풍천장어 |
| 27 | 우정회관 | 심원면 심원로 196 | 561-2486 | 꽃게장정식, 자연산 석화 |
| 28 | 위도회관 | 문화1길 11 | 562-1591 | 냉면, 소머리국밥 |
| 29 | 흥성회관 | 선운대로 3811 | 564-8864 | 불태기탕 |
| 30 | 전주회관 | 북분자로 897 | 563-1203 | 참계장 |
| 31 | 고창선운산풍천장어 | 고창읍 월곡8길 5 | 562-8023 | 풍천장어, 장어탕 |
| 32 | 약선식당 | 고창읍 석정2로 207-35 | 560-7415 | 한식(면역식) |
| 33 | 전주식토속콩나물해장국 | 고창읍 중앙로 274 | 564-0304 | 콩나물해장국, 시래기국밥 |
| 34 | 해찬미소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168 | 562-0065 | 간장계장 |
| 35 | 선운산정자나무집 | 아산면 선운사로 39-1 | 562-4619 | 장어구이 |
| 36 | 흑돼지&면가 | 흥덕면 흥덕로 60 | 561-0102 | 갈비, 삼겹살, 냉면 |

고창군 일자리지원센터

■ 일자리 상담 : 민생경제과 경제일자리팀
(☎560-23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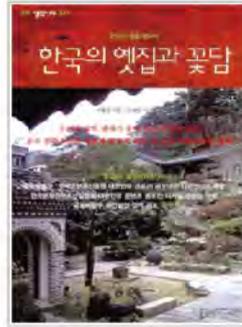
| 연번 | 업 체 명 | 인원 | 모집직종 | 근 무 조 건 | 마감일 | 근무지 |
|----|---------------------|----|--------------------------|--|-----|-----|
| 1 | 사임당푸드(영) | 5 | 생산직 | 시급 7,530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2019년 2월 1일전까지 | 채용시 | 고창읍 |
| 2 | 행복한마음 건강센터 | 1 | 사회복지사 | 월급 18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 채용시 | 고창읍 |
| 3 | M&J 에너지 | 1 | (도시가스) 검침원 및 안전점검원 | 시급 7,530원 주5일근무/09:00~14:00 | 채용시 | 고창읍 |
| 4 | 주식회사 서부현대서비스 | 2 | 자동차정비원 (수리,판금,도장) | 월20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근무시간변동가능) | 채용시 | 고창읍 |
| 5 | 주식회사 서부현대서비스 | 1 | 세무 및 경리사무원 | 월18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 채용시 | 고창읍 |
| 6 | 성산식품 | 3 | 생산 및 포장 | 시급 7,530원 주5일근무/08:30~17:30 (잔업 및 주말근무 가능자) | 채용시 | 고수면 |
| 7 | 성진시스템 | 2 | 생산직 및 현장설치원 | 시급 7,530원 주6일근무/09:00~18:00 | 채용시 | 고수면 |
| 8 | (주)성진인도형 난간 | 2 | 용접 및 제조원 | 월급 160~200만원 주5일근무/08:30~17:30 | 채용시 | 고수면 |
| 9 | 연경전자(주) | 2 | 납품 운전원 | 월급 200~220만원 주5일근무/08:00~18:00 | 채용시 | 고수면 |
| 10 | 연경전자(주) | 2 | 품질검사, 반제품 조립 | 월급 200~210만원 주5일근무/08:00~17:30 | 채용시 | 고수면 |
| 11 | (주)한맥중상이용 사춘복지공장 | 1 | 단순근로 | 월급 18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 채용시 | 고수면 |



사서 추천

함께 읽고 싶은 책

일반도서



한국의 옛집과 꽃담 :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종근 / 생각의 나무 / 2010
성호도서관
610.911 이75ㅎ

이 책은 고창 공음출신 새전북신문 이종근 문화부 부국장이 10여년동안 전국에 산재한 꽃담을 답사한 기록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작가가 담장, 굴뚝, 합각 등에 새겨진 수많은 의미와 상징들을 설명해 우리 문화를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질박한 삶과 다양한 계층이 지닌 문화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는 즐거움도 선사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꽃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역별로 풀어내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우리지역의 김정희 고가(古家) 등에는 어떤 아름다운 꽃담이 존재할까요? 책을 통해 잠시 산책을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도서



아홉 살 마음 사전

박성우 / 창비 / 2017
성호도서관, 고수·무장 작은도서관
성호 아 181.7 박54ㅇ, 고수 아 181 박54ㅇ
무장 아 181.71 박54ㅇ

어린이를 위한 감정 사전!
마음을 표현하는 80개의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청소년 시집 「난 빨강」의 저자 박성우 시인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통해 감정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번쯤 느껴봤지만 잘 알지 못했던 감정들을 그림과 글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단어가 쓰이는 상황에 집중해 읽다보면 어른과 아이도 어느새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오해와 갈등이 아닌 소통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는 책, 지금 추천합니다.

외국인 범죄없는 안전한 고창



- 고창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 -

1.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업주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외국인 고용한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 단속된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강제출국 &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2.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및 범죄행위 단속 강화

- 음주소란 범칙금 5만원
-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3만원
- 트럭 화물칸 탑승 범칙금 3만원
- 무면허운전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3. 2018.10.1.~2019.3.31.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기간

- 위 기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입국규제 면제

4. 미등록 이주 노동자(불법체류자) 신고센터(1588-7191)

고창경찰서

이달의 고창 농산물

고창딸기

- 판매처 : 손현식 농가 (고창읍 성두리)
H. 010-2016-5047
김봉주 농가 (공음면 건동리)
H. 010-8642-2418
- 가 격 : 농장 방문구입 1kg
(13,000원 ~ 20,000원)
택배 주문구입 2kg
(45,000원-택배비 포함)
- 특 징 : 설향 품종, 13브릭스 이상
향긋한 맛과 향

